

슬로시티 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일본 연수 규모보고서

- 주민 주도형 마을 공동체 선진 사례 답사 및 체험
- 슬로시티 활성화 방안 답사와 현지 조사 및 관광분야 설정 비교를 통해 관광마케팅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함

I 벤치마킹 개요

- 방문기간 : 2019. 4. 21.(일) ~ 4. 24.(수) / 3박 4일
- 장 소 : 일본 교토, 오츠, 시바에, 오사카, 나가하마 등
- 참가인원 : 18명 (협의회 회원시군 14명 / 한국슬로시티본부 4명)
- 방문지 및 일정
 - 4월 21일 : 오사카 돈다바야시시(전통적 건조물 보존지구)
 - 4월 22일 : 후쿠이현 사바에(세계 3대 안경도시), 에치젠(학습환경 거점시설)
호텔 회의실(워크숍 및 간담회)
 - 4월 23일 : 시가현 나가하마(상업가 마을만들기) / 교토(전통건물 보전지구)
 - 4월 24일 : 오사카(명소 시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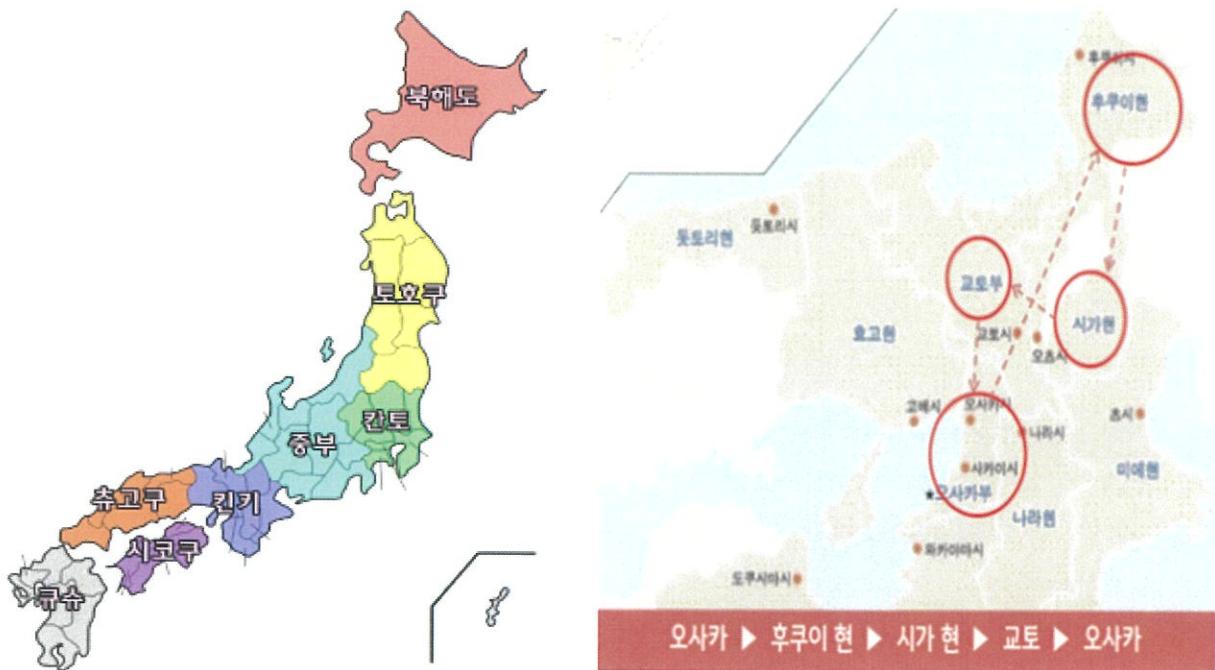
○ 참석자 명단

	소속	인 원	성 별	성명 및 직책	In & Out	전 화
신안군	문화관광과 관광정책팀	1	여	오수영 주무관	인천	010-3225-****
완도군	관광마케팅팀	1	남	김태훈 주무관	부산	010-4186-****
담양군	녹색관광과 시설팀	1	남	김장호 팀장	인천	010-3161-****
하동군	관광진흥과	1	남	정채섭 주무관	인천	010-8538-****
예산군	문화관광과 관광진흥팀	1	여	윤주형 주무관	인천	010-7599-****

전주시	관광산업과 슬로시티팀	1	여	양숙경 주무관	인천	010-2414-****	
상주시	관광진흥과	1	여	김지현 주무관	인천	010-4250-****	
청송군	관광정책과 관광마케팅팀	1	남	이재천 주무관	부산	010-9841-****	
영월군	문화관광체육과	2	남	강상욱 주무관	인천	010-2303-****	
	김삿갓면 총무과		남	박경식 팀장	인천	010-2353-****	
태안군	관광진흥과	1	여	정경희 팀장	인천	010-3721-****	
영양군	문화관광과	1	여	김지현 주무관	부산	010-6429-****	
김해시	관광과 슬로시티정책팀	1	여	김현정 주무관	부산	010-9441-****	
서천군	문화관광과	1	여	이온숙 팀장	인천	010-2223-****	
국제슬로시티연맹 한국슬로시티본부		4	남	손대현 이사장	부산	010-3244-****	
			여	장희정 사무총장	부산	010-3877-****	
			여	곽나현 직원	부산	010-9180-****	
			여	이지윤 직원	인천	010-9407-****	
총 원			남 7 여 11		인천 11 부산 7	합계 18명	

II 국가 개요

- 일본은 수상을 중심으로 하는 의원내각제를 채택하고 있으며, 일왕은 상징적 원수로 일본 헌법에는 일본국 및 일본국민의 통합의 상징으로 규정되어 있다.
- 행정구역상으로는 47도도부현(都道府縣)으로 구획이 나뉘지며, 동경도(도쿄도, 東京都), 북해도(홋카이도, 北海道), 경도부(교토부, 京都府), 대관부(오사카, 大阪府)등과 43개의 현으로 이루어져 있어, 지방자치제로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 ◆ 수도 : 동경, 도쿄 (Tokyo)
- ◆ 면적 : 약 38만km² (한반도의 1.7배)
- ◆ 기후 : 해양성의 온화한 기후
- ◆ 종교 : 신도(Shintoism), 불교(Buddism), 기독교(Christianity)
- ◆ 인구 : 1억 2685만 명 (2019년 통계청)
- ◆ 언어 : 일본어(Japanese)
- ◆ 주요민족 : 일본족 (Japanese 98%)

III 방문지 소개

- 일본 전통 건조물보존지구: 오사카 부 돈다바야시 시(富田林市) 지나이마치(じないまち)
 - 돈다바야시 시 지나이마치에서는 중세기, 약 450여 년 전의 건축물을 만날 수 있다. 에도, 메이지, 다이쇼, 소와 초기의 건축물이 약 180여 동, 옛 멋을 지키고 있는 건축물 500여 동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 중세시대 불교의 일파인 신슈 사원을 중심으로 발전한 이 동네는 에도시대에 교토 사찰 출장소가 이곳에 처음 만들어지면서 상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예전의 모습 그대로 잘 보존 되어있으며, 주변에 높은 콘크리트 건물이 없고 낮은 단층 구조의 목조식 주택이 붙어있다. 기와지붕을 얹은 전통 가옥 구조를 구경할 수 있으며 실제 사람이 살고 있는 집들이다.

- 마을을 걷다 보면 집집마다 죽창과 못으로 만든 철창이 있는 가옥을 볼 수 있다. 이 창문은 ‘무시코마도’라고 하는데, 이는 에도시대 건축의 특징이라고 한다. 오사카에서 유일하게 옛 모습, 옛 건물을 볼 수 있는 곳이며, 현재는 중요 전통적 건조물보존지구로 선정되어있다.



○ 세계 3대 안경 산지 : 후쿠이 현(福井県) 사바에 시(鯖江市)

- 인구 79만 명의 작은 지방자치단체인 후쿠이 현은 행복도 1위, 초중생 학력평 가 1위, 노동자 세대 실수입 1위, 대졸 취업률 1위, 정규직 비율 1위, 보육원 수용률 1위 등을 차지한 대표적인 행복도시이다. 사바에 시는 후쿠이 현 중앙 부에 위치하며, 대부분의 시민이 특산품인 안경 관련 산업 또는 업무용 칠기 생산에 관여하고 있다.
- 후쿠이 현의 시민들이 수입이 높은 또 다른 이유는, 맞벌이 비율이 전국 1위로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는 여성이 일하기 편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높은 보육원 수용률과도 관련이 있다. 신생아 출생률은 전국 8위이다. 여성 한 사람이 신생아를 1.61명(2010년 기준) 낳는다고 한다.



○ ‘고향교육’ 거점 시설 : 후쿠이 현(福井県) 에치젠 시(越前市)의 에코빌리지 교류센터(エコビレッジ交流センター)

- 일본 후쿠이 현 에치젠 시에 있는 ‘에코빌리지 교류센터’는 마을의 환경학습 거점시설이자 지역 아이들의 살아있는 교육현장이다. 지역사회와 주민, 시민단체 등이 마을 아이들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활동 등에 적극 동참하고 있기 때문이다.
- 특히 이 마을의 유일한 유치원 및 초·중학교가 합쳐진 작은 학교인 ‘사카미치 소학교’와 연계해 체험과 자연관찰 등 연 40시간의 다양한 환경생태학습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유아부터 중학생까지 전교생 40명이 주민들과 함께 마을의 논과 호수를 보호하고 모내기, 김매기, 벼 베기 등에 참여하고 있다.

또, 23명의 유치원 아이들을 위한 보육과 학생들의 방과후 활동도 지원하면서 아이들의 사랑방 역할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최근, 마을에는 건강한 아이를 키우기 위한 짧은 세대들의 이주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



○ 도시재생 성공 사례 : 시가현(滋賀県) 나가하마시(長浜市)

- 1975년부터 나가하마 교외에 대형 쇼핑센터들이 들어선 이후 중심시가지가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하였는데, 700여 개에 달하던 중심 상점가의 점포가 1989년에는 150여 개만 남기고 문을 닫아버렸다. 중심 시가지의 쇠퇴는 나가하마의 침체로 이어졌다.
- 나가하마의 도시재생 첫 걸음은 나가하마 성 재건이었다. 시민들의 기부로 이뤄진 이 사업을 계기로 중심시가지 활성화를 위한 나가하마의 마치즈쿠리(마을 만들기)가 시작되었다. 쇠락한 마을을 변화한 마을로 되살리기까지 두뇌와 돈, 그리고 땀과 노력이 더해진 이 사업은 지금도 여전히 정부의 지원을 받으

며 진행 중이다.

이는 일본 내에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 사례로 알려져, 현재는 지방으로 선진 사례를 전파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IV 벤치마킹 후 의견

- 도시의 경관 · 마을 만들기는 시민 · 기업 · 행정에 의한 파트너십의 마을 만들기를 추진하여야 한다.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의 보전 및 장조, 질 높은 주거 환경의 형성 등에 기여를 하고 있다. 마을 만들기의 주체인 주민의 자주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마을 만들기 활동의 거점으로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마을 조성에 관한 정보를 주고받는 소통 창구 역할도 한다. 전통적으로 직장과 주거시설이 공존하는 도심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지역 자원의 재생에 의한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도모한다. 마을의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지역과 마을을 키워 나가면서, 전체 생활을 좋은 방향으로 만들어가는 마을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의 뇌구조는 다르다. 과연 의식이 변화하지 않고 서야 일본처럼, 일본만큼 진행하려는 것은 지금 당장은 불가능해 보인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움직임과 노력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크다. 한국이 일본 보다 10년 뒤처지는 것이 오히려 다행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 모습이 일본이라면 그들이 실패한 길을 걷지 말고 교훈삼아 더 좋은 방향으로 의지를 모아 나아갈 수 있을것이란 생각이 든다.
- 찰진 밥 같은 한국인, 동남아 쌀 같은 일본인. 뭉쳤을 때 찰진 한국이냐, 뭉치지 않고 흩어지기 쉽지만 남에게 피해주기 싫어하는 일본이냐. 무작정 좋다고 따라하지 말고 한국정서, 한국인에 맞는 제도로 가다듬는다면 더 좋은 결과물이 생길거라 기대해본다. 일본의 제도와, 일본인의 행태를 가까운 곳에서 듣고 살짝이지만 직접 경험해본 이번 벤치마킹은 여러모로 슬로시티 업무를 떠나 앞으로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것이다. 끝./

